

교회 목표

신성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예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권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1:21)

발행처: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665-1 ☎ 02-552-8200 © 2004 주간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종현 편집국장: 이형수

‘그 길’을 따라 헌신하는 당회원들

지난주 수요일 2부 예배, 교역자·안수집사·권사 헌신예배

신년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올 한 해에도 오직 복음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다(요 14:4~5). 뿐만 아니라 2004년 첫 주일에는 복음의 길을 따라 행진하려는 우리에게 성찬식을 통하여 복음의 은혜와 위로를 풍성히 맛보게 하셨다. 이러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지난 수요일 2부 예배 시에 먼저 교역자들과 장로들, 안수집사들과 권사들이 하나님께 헌신예배를 드렸다. 열왕기하 5장 1~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선포된 이 날 메시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더 소중히 여기고서는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복종할 때 비로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모든 헌신자들은 주님의 그러한 말씀을 달게 받고 다시 한 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특별히 이번 헌신예배부터는 헌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하는 순서를 가졌는데, 미리 준비한 헌금을 정성스레 봉투에 담아 드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모든 헌신예배가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리지는 저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

칭찬보다 기도가 필요한 일꾼들

새해가 시작되면서 2004 시무 직분자 요람과 '충현교회 시무장로 현황표'가 각각 발행되었다. 교회가 이런 자료들을 발행하는 목적은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여 틈틈이 교회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주의 몸된 교회는 서로를 위한 기도 속에서 더 든든히 세워진다. 세상에서는 칭찬으로 서로에게 힘을 북돋워준다고 말하지만, 주의 교회에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주께서 일꾼들에게 힘을 실어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후 1:11)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복음의 길로 매진하는 일에 앞장 선 교회의 일꾼들을 위하여 가정예배 때마다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온 교회가 기도로 찬양해지는 24시간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로·안수집사·권사 24시간 연속 기도회

작년까지 권사회의 주관으로 권사들만 24시간 연속으로 기도하던 것을 확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는 장로, 안수집사도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다. 2000년부터 교회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권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24시간 연속 기도회가 이번엔 장로, 안수집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더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증거이다. 특별히 장로와 안수집사는 하루 중 가장 취약 시간인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기도 순서를 맡았고, 나머지는 권사들이 맡게 되었다. 앞으로는 24시간 연속 기도는 교회의 5대 목표와 계속되는 단기선교, 위임목사와 교역자들 그리고 교회의 각 기관 및 기타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될 것이다. 이에 모든 성도들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김없이 시작된 CMTC

주의 일을 하다보면 갑작스런 일들이 매우 많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이루시기 때문이다. 지난 주일에 시작된 올해 첫 CMTC도 그러했다. 홍보도 부족했는데, 620여 명이 되는 많은 성도들이 피곤한 중에서도 선교의 사명감을 가지고 엄숙하게 훈련에 참여하였다. 특별히 올해 CMTC는 교육과정 및 과목이 크게 개선되어서 단기선교사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오늘 훈련일정 및 다음 달 훈련일정은 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준비된 예배가 아름답다

예배위원회 봉사자 교육

이번주 화요일(13일)에는 예배위원회 주최로 예배위원회 봉사자 교육이 실시된다. 예배를 수종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영성을 높이고, 실제적인 사역을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강론으로 진행된다. 영성훈련을 위한 특별집회 후에는 예배부와 성례부, 헌금부와 안내부 등이 각각 자체 모임을 하고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실제적인 교육을 하게 된다. 신령한 예배를 위한 봉사자들의 이런 준비를 본받아 충현의 모든 성도들도 한 주동안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복음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갈 신임 교역자들

지난주 교회는 교구와 교회학교를 섬기게 될 네 분의 목사와 세 분의 여전도사를 청빙하였다. 이번에 청빙된 목사는 이경준(66년생, 15교구 지도), 이창수(69년생), 김준희(69년생), 윤수일(71년생)이고, 전도사는 김정희(63년생, 14교구 부지도), 이복순(67년생, 19교구 부지도), 류진희(71년생, 19교구 부지도)이다. 이로써 35명의 목사와 21명의 여전도사들이 각 교구와 교회학교와 위원회를 섬기게 되었다. 모든 교역자들이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새롭게 단장된 복음 소식지, 주간충현

주간충현 편집 방향 안내

2004년 1월 11일부터 주간충현의 지면이 새롭게 구성된다. 이러한 변화는 주간충현이 복음의 소식지인 동시에 온 교회를 한 마음으로 묶어주어 교회가 일치된 걸음으로 나아가갈 수 있게 해주는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 1면 - 교회의 5대 목표에 따른 전체적인 방향 제시 및 교회의 알릴사항
- 2면 - 다음 주일 영아실교양영어권 대상자 및 선교 언어 준비
- 3면 - 다음 주일 한글실교(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구역성경공부)
- 4면 - 장로 칼럼(당회원들의 칼럼 연재)
- 5면 - 선교와 전도(단기선교 및 외선부 사역 소개)
- 6면 - 천국학교(교회학교 소식)
- 7면 - 간증과 나눔(예로로 간증, 다음주일 찬송, 새가축)
- 8면 - 교회소식면

하나님의 인도 아래

올해 첫 단기 선교팀 출발

2004년도 단기선교사역의 첫 출발점이 대학부에서 나왔다. 이철호 장로를 팀장으로 하여 대학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인도 단기선교팀이 8월 9일의 일정으로 지난주 월요일(5일) 선교지로 출발하였다. 주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보면 참으로 놀랍고 또 놀랍다. 한 창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할 시기이건만 주의 은혜로 오직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젊은이들! 주께서 그들을 크게 사용하시리라 믿는다. 지난해에는 152개 팀, 1493명이 단기선교에 헌신하였는데, 올해에는 벌써부터 작년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각 교구에서 선교 준비를 하고 있다 하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렘 3:2b).



이경준 목사

이창수 목사

김준희 목사

윤수일 목사

김정희 전도사

이복순 전도사

류진희 전도사

LOST WORD

⁽¹⁾“Behold,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GOD,
“When I will send a famine on the land, not a famine for bread or
a thirst for water, but rather for hearing the words of the LORD. ...” (Amos 8:11~14)

Though Amos was a sheep breeder, not a professional prophet, God called him to preach His word. God talked to this master shepherd because the Israelites lost their faith. They distorted and ignored the words of God by making the Nazirites (priests) drink wine and commanding the prophets to stop prophesizing (see 2:12). They turned God's servants into man-made servants, so they could make God's people into whatever they wanted. Their earthly life, eight centuries before Jesus, was materially rich. They had all the worldly luxuries of that time, but they did not have God's Word. God talked to Amos, through prophecy, to tell His people that their spiritual food would soon disappear. The day would come, in captivity, when the people would long for the words of the Lord, which they had lost in prosperity.

The Israelites were God's chosen people, His children. Their decay came from not listening to their Father's voice. How could their spiritual life grow without God's Word? Their continued disobedience caused God to destroy their hope, “O daughter of my people, put on sackcloth and roll in ashes; mourn as for an only son, a lamentation most bitter. For suddenly the destroyer will come upon us” (Je. 6:26). Their sins darkened to the point where Zechariah even prophesied that they would kill Jesus Christ (see Zc. 12:10). Their hope disappeared because the Word of God disappeared from their lives. Without God's Word Israel could not live. Moses made this clear when he told them, “man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but man lives by everything that proceeds out of the mouth of the Lord” (Deut. 8:3). Jesus Christ said exactly the same thing when He was tempted by Satan (see Mt. 4:3&4). I'm asking you now, honestly, are you starving for spiritual food? Have you lost the Word of God? This Word is today's prophecy for Choong Hyun.

If you have lost the Word of God, then you have also lost His promises. The whole Bible is God's promise. If you lose the Word, you lose the promise. If this church does not have the Word of God, then we do not have the promises of God. Salvation, redemption, and eternal life are God's promises. How can His children obtain all these things without His word? His word is the bread of life. If you keep His word, everything is okay, “For as many as are the promises of God, in Him they are yes; therefore also through Him is our Amen to the glory of God through us” (2 Cor. 1:20). The promises of God find their certain fulfillment in Jesus Christ. If we keep His word, everything God promises us is a “yes”, and also brings glory to God because of Christ's presence there.

Abraham's seed is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see Gal. 3:16). The church must give God's direction, order, and assurance. The church has to receive all these things from God. Jesus sai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Jn. 14:6). He also sai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Helper, that He may be with you forever” (Jn. 14:16). The Holy Spirit indwells every believer to give them direction, wisdom, and advice through God's Word. If we do not listen, “Therefore just as the Holy Spirit says, ‘today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s as when they provoked Me, as in the day of trial in the wilderness’” (Heb. 3:7&8). Now, God has blessed our church with His word. If we do not listen, then we cannot live a life of faith. Without faith we do not have the love of God. If we are disobedient, then the Word of God is not within us. Without the Word of God what is going to happen to us? God's promises will diminish, and like the Israelites, destruction will follow.

Sadly, many people and many churches are turning the point of the

Bible to other places. Every Christian claims to love the Bible, but not all believe it is the Word of God. Many use it for their own benefit or own judgment. They continually question why God did this or that, so that they can insert their own conclusions. They turn God's Word into a valuable book, not the Bible. The Bible is no longer the Word of God; it is just a good resource. Sometimes they read it, and sometimes they do not. Recently, liberal theologians are gaining a lot of respect with others through their deep, wide, and overt biblical disagreements. They try to destroy the Bible with their clever reasoning skills and wise insights. Humans love to do that. Luke 16:17 says, “But it is easier for heaven and earth to pass away than for one stroke of a letter of the Law to fail.” God's Word has that much power. Do you believe it?

The Bible came from God through men who wrote it. God superintended these human authors so that, using their individual personalities, they composed and recorded without error God's Word to man. As such, the whole Bible is God-breathed,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and profitable for teaching,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2 Tim. 3:16). Do you look at the Bible like this, or do you focus only on some verses while rejecting others? If you do not believe the Bible is God's Word, then you will turn towards other places, like philosophy and psychology. You may gain earthly value, but you will lose heavenly worth. Where is your heart for the Bible? If you don't concentrate on the Word of God, it ends up that you are going to do what God does not want you to do. “Do not love the world nor the things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boastful pride of life, is not from the Father, but is from the world. The world is passing away, and also its lusts; bu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1 Jn. 2:15~17).

Make the Bible your life. If you believe in the word of God, you will receive God's gift of righteousness. Against all hope, Abraham in hope believed God's Word,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Rom. 4:3, 18). He is our father of faith because he believed in the spiritual word. Through faith, the spiritual word lives in your heart and changes you in wonderful and powerful ways. You become a child of God. Through His wonderful word, spiritual word, you grow in sanctification. Please do not mix earthly and heavenly words together. Do not value the cultural, historical, or human perspectives of the Bible above their source. Only believe the Word as the word of God. If you do, then you will walk across the Red Sea and the Jordan River. This is the way of the cross. It is the resurrection way, the way of God's glory. This way is the blessing of God. Eternal life is in the Word of God. The Bible is the only place to find God's purpose and plan for your life. The Word of God contains eternal blessings, happiness, and life. This church preaches the Word of God. Like the sower, we spread God's word, “but the worries of the world, and the deceitfulness of riches, and the desires for other things enter in and choke the word, and it becomes unfruitful” (Mk. 4:19). If you look to the world, not God, then the Word of God works against you. Where are you planted? If you believe in the Word of God, you are planted in good soil.

My dear friends, we are beginning the year 2004. I want each person here today to begin his or her day by reading the Bible. If you do not read the Bible first thing in the morning, then I don't want you to do anything. The Bible is our hope, happiness, blessing, and life. Amen. 🙏

다움주일 설교

잃어버린 말씀



김성팔 목사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암 8:11~14)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 선포된 예언

야보스는 선지자가 아니요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자 말씀을 선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을 치던 야보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하게 왜곡하고 무시했습니다(암 2:12 참조). 나실인들(제사장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을 사담의 종으로 변질시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를 바보대로 변질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나사기 800년 전이던 그 당시, 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호화스러운 사치품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야보스를 보내셨고 변질시켰습니다. 변질한 유식인 하나님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러 말하셨습니다. 편안히 잘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팽개쳤지만, 나중에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그 말씀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예언하러 말하셨습니다.

영적 부패의 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고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쳐 버렸으니 영적 생명이 어떻게 자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말 내 백성이 굶은 배를 부르도록 재에서 굴며 독자를 잃을같이 슬며시하여 통곡할지니 다 멸망시킬 자가 출현하리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렘 6:26). 그들은 길이가 있어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스가라 선지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고도 예언했습니다(눅 12:10 참조). 그들은 소망 잃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팽개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신 8:3).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 4:3, 4 참조).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양식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충현교회를 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약속도 잃게 됨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도 잃게 됩니다. 보십시오.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잃게 될 것입니다. 만일 충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린 사람들일 것입니다. 구원, 구국,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약속들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말씀 안에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여러분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 1:20).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확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며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갈 3:16 참조).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령과 지시와 확신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요 14:16). 그렇습니다. 모든 신자들 안에는 생령님이 내주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지혜와 조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령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령은 경도합니다. “그러므로 생령이 이르시 마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경도하여 경이에서 시련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히 3:7,8).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충현교회에 자신의 말씀으로 복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믿음의 음을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초점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경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불만을 가지고 계속 따릅니다. 성경을 자신들의 생각에 쫓아 맞추려고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聖經)이 아니라 한 권의 훌륭한 책으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좋은 자료 중의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성경을 읽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성경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으로부터 아주 심각하게, 아주 멀리, 그리고 아주 명백하게 벗어나 있습니다. 재치 있는 추론 능력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성경을 허물어뜨리고 하신데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부패한 인간은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17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질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파괴되거나 무너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믿습니까?

몰아야 할 질문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살리면서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없이 기록하도록 감동하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여러분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몇몇 구절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구절들은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이 땅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천국에서는 거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悲惨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로 좇아온 것이라 이 세상에,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5~17).

목숨보다 더 소중한 성경

성경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삼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소망 중에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롬 4:3,18). 아브라함은 믿을 안에서 우리의 조상입니다. 신령한 믿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믿음을 받을 때, 신령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고, 놀랍고 능력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욱 더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지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보다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이나 역사적 해석이나 문화적 해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흥화와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지 여행의 길입니다. 부활에 이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영원한 축복과 행복과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충현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 뿌리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성경의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열매와 재리의 유흥과 자기의 욕심이 들어나 말씀에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느니라”(마 4:19). 만일 하나님이 바라보시게 하신 대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밝은 어떤 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밝은 좋은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04년의 첫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분 한분이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일을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요, 행복이요, 축복이요, 생명이니니. 아멘. H

장로 칼럼

육체의 남은 때와 전도

김 선 초
(장로, 전도위원장)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에 힘입어 신년예배를 온세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모든 것이 새롭고 세련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널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온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신년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축복)의 찬양과 같이 내가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살아왔던가) 몸이 편지 않은데도 사력을 다하여 외치는 위임목사님의 설교, 바로 (그 길)을 향해 달려 온 생애인가? 하는 후회와 감사가 교차하는 순간들입니다.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으면서도 주님과의 참 만남을 막 막연한 미래 속의 일인 양 미뤄두고 이 땅의 육신의 삶에 안주하려고 할 때 주님은 다시 나를 깨워주셨습니다. 참으로 죽음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갈라 놓았습니다. 참과 거짓,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확연히 드러내었습니다. 교회의 직분과 신앙의 열풍도 죽음의 공포 속에서 구원의 근거가 전혀 되지 못함을 뼈저리게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위임목사님이 심방을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그리스도 에 속하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는 말씀으로 저를 권면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대하게 되면 어정쩡하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아주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세요, 모든 것을 하 나님의 십자가 주께 내어 드리는 것을 장로님도 잘 아시잖아요,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나 이제 가는 사람이나 천국 가면 똑같아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힘을 내서서 다시 찬양대에 서시고 예배시간에도 나오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명징하게 들을 수도 있는 말씀인데 나는 그 말씀에 큰 용기를 얻고 모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감쌌습 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고 영원한 생명임으로 구원자이심을 다시 확실히 겠 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생생하고 뜻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이 땅에 100년을 살아도 우님은 여전히 미려일뿐, 준비되지 못한 죽을 앞에 어 전히 당황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얼마를 더 사느냐가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나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확실한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보다 진정한 삶의 목적을 갖고 그 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주님의 아신 바 된 자리가 되어 우리 안에 천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요.

큰 용기를 내어 12월 26일 금요일의 1교구 식구들이 하는 특별찬양시간에 나갔습 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일예배, 신년예배 모두 찬양대석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습 니다. 참된 모든 것이 완화가 돌리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깊은 감사가 밀려 나오 기 시작했습니다.

연말의 결산과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마치면서 공중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 셧습니다. '진정으로 많은 성도들이 나와같이 죽음 앞에 언제 서게 될지 모르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파도처럼 내일 앞에 갈 준비가 되었을까, 살아있다고 하는 이 시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과연 우리 모두는 언제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불뭉듯이 몰려들었습니다. 나의 이런 처지가 되어 보니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백하고 청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식이 중요한 것 도 아니고 자녀들의 앞일이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한 것임 이고 부끄러울 것임인 어찌 할 수 없이 초라한 나의 모습만이 자부 있었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이 요즈음과 같이 실감나고 부러울 수가 없는 데 신년 설교에도 이 말씀이 또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 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7, 8). (과연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는가? 나의 달려 갈 길을 다 달렸는가? 믿음을 지켰는가? 날들은 내다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도 모른다. 좋은 직장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잘 자내고 충헌교회의 장로로서 이기 가든 지 좋은 평을 받고 칭찬을 들으며 지냈으니 영육 간에 복 받은 사람이라! 그러나 지금 나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니 웬일인가? 좀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설 수 있었나?... 좀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나?... 좀더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려 주님을 마를 수 있었나?...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기회가 없다. 늘 내일은 내년에 올 것만인 이젠 내일과 내년을 기약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 주에는 성령께서 주님보다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기쁨과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죽음의 준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

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 바로 십자가 밑에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육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6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는다는 말! 십자가에 들어오기 시작했 습니다. <그렇다. 누가 과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있었는가? 또한 자신 있 게 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닌가?> 바울 같은 분은 매일 매 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 십자가만을 지향하고 살아가기 위해 싸우며 달려왔던 것이었기에, 주님을 마저 대할 바 무엇이 있을 것이 아니라는 기대 감에 넘친 것이리라! 이러한 생각을 하더보니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큰 힘을 주셨습 니다.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육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라 하시니라!> (벧전 4:2)

200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전도위원장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전도 위원회는 교구위원회와 같이 전 교회적인 조직을 가지고 국내전도의 모든 부분을 감당 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각 교구에 연명별(요한, 베드로, 바울, 마리아, 루디아, 에스더, 한나)로 구성된 126개 팀과 전도국가 각 교구 지역에서도 노장도회, 개신전도, 태산전도, 전도를 위한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전도부는 무교회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고 적능전도부에는 군전도회, 경찰전도회, 실업인전도 회, 이미음전도회를 두어 각 적능별로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여 각 적능별로 특 성화된 전도 목표를 가지고 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현전도대가 있어 1년에 2차례씩 전도대원을 양성하고 정예화된 대원들로 몸을 구성하여 이들은 교구 주변의 각 지하철과 병원전도 등 매 주간 중에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사람들조차도 우리 교회는 사회 봉사도 안 한다고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각 교구의 모든 전도회들은 각 교구 지역의 복지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그들을 위 해 숨은 봉사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연인원을 따져 광고한다면 그 숫자의 많음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 동안 이처럼 교회들이 직접 전도활동을 하는 외에 농어촌교회를 지원하는 일이나 기타 기관들을 지원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지 않거 로 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원교회들과 각 교구에서 전도활동을 하는 일도 끊었습니다. 즉 교회는 그동안 복귀자의 지원을 일체 다 끊었습니다. 이는 너무 일방적으로 배후 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가는 매년 각 교구 에서 2-3차례씩 농어촌전도를 했지만 진정한 회심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도활동을 하는 일에 주력하 려고 합니다. 전국의 무교회 지역에 직접 목회자를 파송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돕도 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그러한 장소를 발견하고 그런 곳에 가서 개척할 지 원자가 있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의 단기선교와 같이 직접 전도팀 이 일정 기간 나가서 실질적인 전도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선교는 온통 선교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8월의 어느 금요일 에는 전교를 떠나서도 선교 보고를 하는 사람들과 파송 인사와 나그네 사람들은 500여 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이면 선교 이야기이고 기도하면 선교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앞으로 더욱 계속적으로 더욱 확산되어 나갈 것입니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열연에 대한 열정을 국내에서도 절점해 보고자 합니다. 해외에서는 그렇게도 용 감하고 물불을 안가리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도하던 사람들이 왜 국내에만 들어오면 그런 마음을 잃어 가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에와 같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을까?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25%를 상회한 다고 하지만 지역에 따라 복음화율이 8% 미만인 곳도 꽤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 다. 우리가 해외에 선교하러 갈 때 개신교 복음화율이 8% 미만인 지역 중에서 선정하 는데 그와 같은 조건을 대입해보면 국내에서도 전도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 다. 전도 활동의 정신과 원칙 등을 현재 우리 하신 단기선교와 같은 수준과 원칙을 가지고 행하러 합니다. 즉, 아무 것도 가지지 않고 물질 지원을 금하고, 교회가 있는 지 역은 피하며, 가장 실용한 것은 땅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무형한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 들로 오로지 말뿐만 하고 가서 전도하는 것이요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대 서 각 전도회장이 팀장이 되어 4-6명으로 구성된 팀이 2-3일 정도의 일정으로 전국의 무교회, 비복음화된 지역을 휩쓰는 전도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온 교인적인 전도와 전도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고 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신년 아침 예배를 마치면서 모두가 격려하며 (복음의 길을 걸어 갑시다)로 신년인 사를 하며 출발한 이 한 해, 누구나 자신에게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지만 비록 잠시 고난과 질병과 슬픔이 있더라도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우리를 최상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법을 배워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 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빌어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 12:3).

CMTC 및 언어훈련 일정

지난주에 CMTC와 함께 언어훈련 과정이 8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CMTC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선교란 무엇인지'와 '우리 교회의 선교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언어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옮겨주는 매개체입니다. 낯선 언어를 처음 배운다는 것이 신기하고 즐거운 일일 수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힘들고 고역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기로 결단한 선교가 우리의 마음과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길인 것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품고 이번 주부터 CMTC와 언어훈련에 동참합시다.

CMTC 일정표

주별	1 교시(18:10~19:10)	장소	2 교시(19:20~20:20)	장소
첫째 주	선교의 성경적 기초	갈릴리홀	충현교회의 선교정책	갈릴리홀
둘째 주	타종교의 이해(선택식)		세계 선교의 흐름과 영적 상황	갈릴리홀
	1. 정교, 카톨릭	본당112호		
	2. 이슬람교	갈릴리홀		
	3. 힌두교	나사렛홀		
	4. 불교	베다니홀		

*개설 월: 1월(4일, 11일), 2월(1일, 8일), 3월(7일, 14일)

5월(2일, 9일), 6월(6일, 13일), 9월(5일, 12일) 10월(3일, 10일)

언어훈련(매주) 일정 및 장소

언어	시간	강의실	언어	시간	강의실
몽골	15:20~16:00	제1교육관 309호	우즈베키스탄	15:20~16:00	제1교육관 204호
러시아	"	베다니홀	방글라데시	"	제1교육관 304호
루마니아	"	제1교육관 305호	*캄보디아	"	제1교육관 206호
중국	"	제1교육관 405호	*미얀마	"	제1교육관 408호
카자흐스탄	"	제1교육관 202호	*리소스	"	제1교육관 409호
인도	"	제1교육관 307호	*파키스탄	"	제1교육관 410호
우크라이나	"	제1교육관 301호	영어(초급)	18:10~19:00	베다니홀
스리랑카	"	본당112호	영어(중급)	"	본당112호
불가리아	"	제1교육관 310호	영어(고급)	"	나사렛홀
베트남	"	제1교육관 403호			

* 캄보디아, 미얀마, 리소스, 파키스탄은 Tape으로 대체 강의합니다.

강의실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언어 훈련 강사 확보 및 추이를 보아 상설하겠습니다.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간	선교지	팀	팀장
12월 30일(화)~1월 10일(토)	D	1교구 10지역	구원섭

※ 현재 지역 중인 선교팀

기간	선교지	팀	팀장
1월 5일(월)~1월 13일(화)	D	대학부	이철호

*선교위원회 방침으로 인하여 국기양은 펴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향한 그들의 마음

황인길 (권사, 16교구)

저는 지난해까지 외선부 CIS팀에서 봉사했습니다. 봉사하면서 경험했던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들의 예배와 말씀에 대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CIS(독립국가연합)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몰도바에서 온 분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잘 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 포용하면 금세 마음을 엽니다.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은 러시아 정교를 믿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러시아 정교는 카톨릭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며 동방 정교회에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이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분들의 목적이 처음에는 예배 외의 다른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의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테판은 몰도바에서 온 분으로 부인인 라리사와 함께 CIS의 찬양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몇개월 전에 스테판이 사는 교시원으로 심방을 갔는데 일이 없어 아침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에 대한 스테판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테판은 자신이 몰도바에 돌아가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자량으로 먼 곳에 사는 교인들을 교회까지 데리오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우미드와 굴로자 부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는데 처음에는 이슬람교를 믿었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이 일 또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분들은 포천에서 살고 있어서 교회 오는데 3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도 주일이면 아침 일찍 교회에 와서 봉사합니다. 굴로자가 임신했을 때 무거운 몸으로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매주 일찍 오는 것을 보며 예배에 대한 그들의 열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루다는 밤새 식당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 나와 동역으로 봉사하다가 다시 또 일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밝은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선교단 신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라는 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 못지 않게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외국인 형제 자매들의 영적인 성장과 올바른 예배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교회에 열심히 나와 신앙 생활하는 CIS 형제 자매들을 보며, 그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김현자 (권사, 10교구 몽골팀)

모든 일정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길 간구하며 몽골의 온드라한으로 향했다. 그곳의 날씨는 매우 추웠다.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추위였지만 마음 어귀에서 동그렇게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한 집 한 집 문을 방문했다. 한 팀원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삼 일만에 부활하신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 그들은 대부분 '자네!'라고 대답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니 주님께서 그들을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가정 중 한 가정에서, 말에서 떨어지 심한 불구가 된 오란치맥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는 23세의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누워서 지내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자, 그는 어머니를 의지하고 일어나 앉아서 끝까지 진지하게 복음을 들었다. 진실하게 반응하던 그들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또 다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집의 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모자를 달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경찰모양이었다. 그 가정은 경찰관들이 있어있던 것이다. 몽골은 법적으로 선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두 팔을 벌려 그분을 안으며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자'라고 대답하며 우리를 문 앞까지 배웅했다. 집을 나온 우리는 주님께 감사했다.

몽골의 전 지역에 교회와 세례자, 복음을 들은 분들과 그밖의 많은 몽골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길 기도한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15). 우리 모두 이 귀한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더욱 노력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요”



도 같 수 있잖아요. 나는 ‘주 음성 외에는’이라는 찬송을 참 좋아해요. 그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마음이 기뻐지거든요.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교회에 데리고 올래요.

이성원 (유년부)

나같은 부족한 죄인을 도구로

이 재욱 (대학부)

저는 해의 선교에 대해서 한국 땅에서 전도해도 되고 무엇보다 내 주위의 영혼들이 중요한데, 그들도 전도 못하는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선교 때 그 생각들이 깨졌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었고 부족한 죄인인 저를 통해 구원할 많은 영혼이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은 두 번째 가는 단기 선교입니다. 처음 선교갈 때의 마음만큼은 아니었지만 두려움, 긴장감, 기대감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한가지 확실히 자리잡고 있었던 것은 ‘담대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에서 함께 하였던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교 기간 중 성탄절을 맞이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인도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보잘 것 없는 사역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순간 개개인의 모습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시며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인도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팀이 하나되어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다른 팀원들과 달리 언어가 부족했던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받은 은혜를 다 전하지 못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방법 속에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저의 잘못된 마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저희 팀은 인도 뭍에 있는 대학으로 나아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부족한 언어였던 ‘Believe in Jesus (Christ)’라는 한 문장에 제 모든 마음을 실어서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길 원했습니다. 부족한 죄인의 입술에서만 저를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해주세요’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되어지길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교지로 가기를 망설이는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나님은 인도 땅에도 역사하시고 한국 땅에서도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선교지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에서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느끼고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좀 더 확신하게 되길 수 있었고, 담대한 믿음을 키우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지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한국땅에 있는 메달라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충현 젊은이들이 말하는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탐욕리며 일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열심을 내어 공부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 하며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스스로 완벽해지려 하고 힘들고 지칠 때 자기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평안을 찾기 원하고 신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참 평안을 얻고 기쁨과 안식을 맛보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는 지금도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게 오는 자마다 참 안식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고 그라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께 나아올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역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열심을 통해 선하게 되고 즐거움을 찾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통해서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이 임할 그날을 소망하며 그 날까지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아멘.

이 성훈 (장학생)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사모하라】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창 26:16~18)

이삭은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가려고 가나안 땅을 출발하였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애굽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셔서 그 땅 땅에 영거 주종 주지 않아 버렸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부족한 순종을 기뻐하셨고 이삭을 축복하셨다(창 26:12 참조). 하지만 아버지엘이 이것을 시기하여 떠나가라 명령하였기 때문에 이삭은 그날 끝까지로 쫓겨나게 되었다. 그곳에는 물이 없었다. 이삭은 생명을 좌우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이다.

사실 시기와 상황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이삭처럼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이삭이 이런 장애물에 직면하였을 때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던 우물들을 다시 파셨으니...”(18절)라고 말하고 있다. 이삭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나는 왜 아버지가 남긴 믿음의 흔적을 따라가지 않는가? 그 믿음의 유산을 사용하자”고 생각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삭과 달리 항상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찾는다. 이것은 복음의 큰 역사의 장애물이다. 우리인 새로운 난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물을 얻는 문제를 갖고 있었고 이삭도 역시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다. 여러 가지 차이들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의 겉모습이 다른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책도 역시 같다고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 13:8). 과거에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개성된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을 도와 주실 것이다. 사실 이삭이 우물을 파기 전에도 깊은 곳에는 신성한 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불렛사람들이 흙과 오물로 그 우물을 매웠기 때문에 볼 수 없었을 뿐이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다.

오늘날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가장 큰 장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음에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이삭이 보인 본을 우리도 실행해 올길 수 있다. 그래서 불렛사람들이 넣은 콧등사냥들을 깨끗이 제거하여 다시 하나님의 옛 볼품들을 만나는 성령의 능력을 얻음으로써 교회가 다시 복음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식 목사·중동 2부 지도)

내 영혼의 닻

-페리 보드만(Perry Boardman)

인생은 생나 바다 같으니

잠잠이 평안한 날 이후 없네.

이 거친 바다에서

내 영혼 붙들어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뿐이라.

그 말씀만 영원이

내 영혼의 견고한 닻이니

그 말씀의 침묵이 나 곧게 서서

저 천성의 예언에 인척이라.

그곳이 내 영원한 본향이니

거기에 들어간 이후로는

인생의 거친 바다 더 이상 항해지 않으니.

*복음의 길로 매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나침반과 우리의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진리입니다

기도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이 계시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많은 아픔을 감내하면서 극복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지혜를 주시고 해안을 열어주시며 나를 알게 하시어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언제나 기도를 들어주시는 당신이 계신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며 슬픔 떠나 역울할 때도 당신에게는 늘 모른다 하지를 알으시고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한정된 삶이기에 사람과 시간을 저울질했었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깊은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 후엔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누리치게 하시는 당신. 감당하기 어려운 파고를 극복하게 하심도 고난 위에 거둔나케 하시려는 당신의 은총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시여! 원컨대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나누게 하시고 당신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신 있게 한 점의 부끄럼도 없게 하소서. 먼 훗날 당신이 부르시면 주님의 영원한 생명 길에 들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순석진)

*순석진 씨는 병원 진료업무로부터 복음을 들은 성도입니다. 그동안 파킨슨씨 병으로 발가락 절단 수술 등을 했고 지금도 강남병원에서 투병중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견유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 · 가 · 축 · 을 · 환 · 영 · 함 · 이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5	이정훈	1	교역자		40	김정현	2	장년부	전학희(18)	55	백성기	14	장년부	백은경(10)
26	윤선영	1	사모		41	전미선	2	고등부		56	윤진희	14	장년부	백은경(19)
27	이형수	1	교역자		42	윤원희	2	장년부		57	이지민	17	장년부	
28	유재진	1	사모		43	조현재	3	장년부		58	홍광한	9	고등부	이현철(13)
29	남기순	1	교역자		44	남기순	3	장년부		59	조아영	19	고등부	
30	이재경	1	사모		45	조유나	3	장년부		60	한승우	19	대학부	장석호(5)
31	김준희	1	교역자		46	백성환	3	장년부		61	조희원	19	장년부	조성희(2)
32	김보영	1	사모		47	김기희	7	장년부		62	이미진	19	장년부	조성희(2)
33	김정희	1	전도사		48	이경민	19	장년부	최성훈(6)	63	홍은숙	19	장년부	조성희(2)
34	유진희	1	전도사		49	정훈	10	장년부	안준호(4)	64	김규태	1	마녀인	
35	이복순	1	전도사		50	이형식	10	장년부	안준호(4)	65	김희원	19	장년부	이주영(3)
36	문주심	1	장년부		51	박수호	14	장년부	김준호(1)	66	이동욱	19	장년부	
37	정재욱	1	장년부		52	이윤영	14	장년부	송정자(14)	67	장지희	6	대학부	
38	고순심	1	장년부		53	사순숙	14	장년부	이영현(1)	68	박혜미	19	에데다부	박지영(19)
39	정운석	1	대학부		54	스캐라	14	장년부	이영현(1)	69	김필희	19	에데다부	김희정(19)

※ 순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표 오시기 바랍니다.

♡ 교구 안에서 만난 예수님 ♡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

저는 우크라이나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원래 남편이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몇일 전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였습니다. 저도 다리가 불편했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담담하게 떠났습니다.

전도하던 중 어린 아들과 함께 길을 가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전도지를 받더니 반가워하며 예수 믿고 교회에 가면 한국말을 배울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통역해 주던 신학생에게 배우면 된다고 했더니 그 학생의 전화번호를 적고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 통역해 주던 신학생이 먼 나라에서 오신 할머니 권사님께서 자기 나라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전도하는데, 자신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주님께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장차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에게 복음 전파 사역과 영혼 구원의 열정에 불을 지피는데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조선족이 사는 마을에 가서 축초전도를 하려고 점심을 싸가지고 가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어디서 이 밥을 먹나 하고 걱정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점심을 방문하러 전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이는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조선족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사시는 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말이 통할 것이라는 뜻으로 손짓하며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들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식사를 권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웃으며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식사를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탈원들과 모일 시간이 되었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해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승낙하셨습니다. 그래서 탈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시시각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격 놀랐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을 통하여 한 가정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일들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교는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의 종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그분 앞에 있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구 옥자(권사, 8교구)

♫ 다음 주일 찬송.....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아라렐라 캐더린 행키는 은행가의 딸이었는데 18세부터 여정원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후에는 동일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였다. 그녀는 중병을 앓고 나서 조금씩 회복되자 후일 '옛날 옛날이야기'로 불렸던 이 시를 지었는데, 그 1부는 '듣고 싶은 이야기'라는 소재목으로 4행 8연으로 되어있고 50연으로 되어있는 2부는 '들려진 이야기'로 불렸다. 1867년에 몬트리올에서 열린 YMCA의 한 집회에서 윌리엄 하워드 돈은 영국군 러셀 장군이 눈물을 흘리며 이 시를 읽고 있는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고 그 시에다 곡을 붙였다. 이 시의 1부에서 4개 절을 택해서 1867년 작곡하였다.

1절: 오랜 옛날 이야기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영광과 사랑에 관하여 전하여 주고, 악하고 곤고하며 무리케하고 다름하였으니 어린이들에게 관하여 귀담아들 말씀해 주세요

2절: 놀라운 구속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등에 대해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3절: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려 오셨다는 사실이 근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항상 듣기 원합니다.

4절: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좇다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주 예수님의 사랑을 들려주세요.

*이 찬송가 가사는 영문 찬송가를 번역한 것으로 순천 성도들도 하여금 주의 은혜를 더욱 깊이 감사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찬송가와 대조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찬양위원회)

■ 협덕선교사 허요섭 (아집트)